

작인한 4월을 이겨 낸 건강검진

은 상 구철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

<지난 호에 이어...>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비영리 공익기관이라서 여느 병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또한 마침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 곳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모든 결과를 알 아볼 수도 있겠다고 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있는 탄방동까 지 명숙이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면서 우리 나이부터는 건강검진을 매년 꼭 해 봐야 한다며 장황설을 펼쳤다.

나는 언즉시아(言則是也), 지당한 말씀이라고 대구해 주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인 듯한 여자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명숙이가 친분이 있다는 사람인 가 보다 하고 여겼다.

명숙이가 나를 소개하자 신미경 대 리라며 인사를 했다. 상냥하고 친절했 다. 신 대리의 안내로 우선 검진복으 로 갈아입고 순서를 기다렸다.

친구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려니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레이는 듯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 대리가 우 리를 낯설지 않게 안내해 주었다.

대략 2시간이 지났을까. 모든 검사 가 잘 되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알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내일 한 번 더 오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제 막 꽃봉오리가 돌아나는 목련 의 가지 사이로 4월의 햇빛이 포근했

다.

다음 날 아침,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절친한 사이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을 안다고 하던가. 명숙이와 나는 그런 '지음(知音)'의 친구 사이이다.

헌데 그런 명숙이가 대뜸 짐작하고 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건강관리협회 신미경 대리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여자의 직감은 예리하다. 아 나의 검진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었나 보다. 명숙에게 되물었다.

“왜 나한테 뭐 이상이 있대? 오늘 같이 결과 확인하러 가기로 하고서 는...?”

“응,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집안 정리나 좀 하고 오후에 장 볼 일을 겸해서 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수화기를 놓고서도 심상 치 않은 생각이 가시지를 않았다.

혹시 내 몸에 무슨 몸쓸병이라도 생긴 것이나 아닌지... 결과를 알기 전까지 마뜩하지 않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간암'이 생때 같은 남편을 앓아 갔고, 난 목 디스크에 전신마비를 겪 지 않았던가. 이제 겨우 스스로 기동 할 정도로 몸을 추스렀는데... 여기서 또다시 험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 나. 잔망스러운 생각을 하나하나 떠올 려 보느라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 다.

오히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함으로 마음을 굳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 다는 생각과, 그런 생각들을 해 봄으 로 하여 어찌면 그러한 불행이나를 비켜갈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생각 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학교 다닐 적 수학 시간에 배 웠던 '경우의 수'에다가 예상할 수 있 는 모든 상황을 다 떠올려 보았다. 그 러면서도 결론은 '나는 아닐 것이야, 나에게서는 불길한 일이 없을 거야.' 하 는 기대로 맺어졌다.

오후에 찾은 건강관리협회에는 우 리처럼 건강 검진 결과를 알기 위해 온 여러 명이 더 있었다. 어찌처럼 신 미경 대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차를 내 왔다. 애써 대수롭지 않게 결과를 얘기해 주려는 걸까. 이야기 사이사이 마다 내마음은 긴장이 되고 있었다.

얼마 후 원장님이라는 젊은 의사 한 분이 우리 앞에 앉았다. 역시 짐작 하고 자상하게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 러나 이 일을 어찌랴. 의사는 내가 아 침부터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던 '경우 의 수' 중에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말 하고 있지 않은가.

'자궁경부암 의심...'

왜 불행은 나만 따라 다니는 것이 냐. 그토록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라면 서 마음으로 내둘러 버리려 했던 최 악의 '경우의 수'가 나를 붙잡고 놓

지 않는 것인가.

원장은 대학병원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다시 받아 보라고 했다. 일부러 위안을 주려는 것인가. 원장은 아마 만일 자궁경부암이 확실하더라도 아직은 초기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을 여러 번이나 강조했다.

신미경 대리가 나에게 대학병원의 어느 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 주었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동안 명숙이가 내 걱정을 나보다 더 했다. 아, 그래서 사람은 친구가 필요한가 보다.

명숙이가 아니었던들 난 내 안에서 커가고 있는 병명도 모르고 죽어 가고 있었을 것을. 명숙이의 손을 꼬옥 쥐고 진정 고맙다는 내 마음을 전했다.

대학병원에서의 검진 결과 '자궁경부암'으로 확진되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낫을 것이라 한다.

죽고 사는 일은 운명에 달렸다고 하지 않던가. 내 남편도 암으로 갔다. 이제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치유 가능성이 크다니 결과가 좋기를 바랄 수밖에. 6년 전 목 디스크 수술처럼 어처구니없는 사고나 없어야 할 텐데.

어느 새 명숙이가 알렸는지, 아들과 딸 모두 내 곁에 와 있었다. 우선 임원을 했고, 수술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단다.

제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려는지, 그래도 자식들의 표정이 밝은 걸 보니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 병실에서 지낸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12년 전 남편의 병상에서 느끼던 불안함도, 6년 전 목디스크 수술 때의 짜증스러움도 없었다.

모두가 조기 발견 덕이라나. 병마도 예방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가 보다. 명숙이는 퇴원할 때까지 날마다 내 곁에 와 주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신미경 대리는 화병에 예쁜 꽃을 담아 가지고 왔다. 고마운 사람들. 그 빛을 어떻게 다 갚으려고.

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고마운 사람들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 어쩔 수 없었다.

내 이제 이렇게 다시 살아서 새삼스럽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떠올려 본다. 명숙이가 함께 건강 검진을 자칫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지도 모른다.

건강 검진 덕에 나는 나의 삶을 잃지 않았다. 내 몸에서는 생기고 있던 나도 모르는 병을 퇴출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이제 일상의 편안함 속으로 돌아와 있다.


어느 시인이 잔인하다고 했던 4월.

하지만 2000년 4월, 나는 그 잔인한 계절에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부터 돌아오는 4월에는 내가 먼저 친구 명숙이에게 건강 검진을 받자고 해야겠다.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강 검진. 꼭 걸로 증상이 나타나야

어디가 아픈가보다 하고 여기던 습관으로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매년 새봄을 맞으면서 우선 건강 검진부터 할 것이라고. 오래 살고 앓고의 여부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일은 살아가는 자의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4월의 아침. 어느 새 하얗게 핀 목련의 자태가 햇빛을 받아 우아하게 느껴졌다.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강 검진,
꼭 걸로 증상이 나타나야
어디가 아픈가보다 하고 여기던
습관으로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오래 살고 앓고의 여부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일은 살아가는 자의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개똥 밟에 굴러도 이성이 낮다고 하지만,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사는 계함에 겨워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모진 세파를 겪으면서 자식